

북한 기록영화 연구: 영화문헌의 의미생성 구조

Studies on North Korean Documentary Films: Structures as to How Meanings of Film Literature are Made

김 승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Seung Kim(offtoon@konkuk.ac.kr)

요약

이 글에서는 북한의 중요한 정치적 해였던 2015년에 제작된 영화문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의 의미생성 구조를 파악하여, 북한이 영화문헌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북한 주민을 선동하고, 설득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분석대상의 서사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의 논증구조를 통해 이미 제시된 주제를 확증시키고 있다. 영상기법은 대중적 투쟁정신을 고취시키고 있고, 사운드는 대중에 응집력을 추동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화문헌의 의미체계는 첫째, 영상 실록의 형태를 띠며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를 택하고 있다. 둘째, 당의 선군영도를 따라 주체위업을 이루어 내자는 주체의식을 명확히 논증해 내고 있다. 셋째, 혁명 활동에 대한 수령의 근면성을 기록영상을 통해 착상, 배치함으로써 늘 깨어 일하는 지도자상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에서 영화문헌은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무기이다. 이에 따라 모든 기록영화 창작가들은 영화문헌을 수령과 당의 영화문헌이 되게 해야 했다. 김정은 체제가 ‘사회주의문명국’이라는 사회적 비전을 내세워 영화문헌이라는 선전도구를 통해 통치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 | 북한 기록영화 | 영화문헌 | 북한영화 | 북한 문학예술 | 의미생성 |

Abstract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how North Korea has incited and persuaded its people by figuring out the structure regarding the meaning creation of its documentary film “Kim Jong-un, the Respected Comrade Supreme Commander, Giving On-site Guidance on the Grand Project of the People’s Army” produced in 2015, which was North Korea’s politically important year.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its narrative structure of the film took the form of an introduction, body, and conclusion to substantiate it obviously given theme. Its imaging techniques are geared towards uplifting the public’s combat mentality and its sound contributes to achieving their adherence. In this regard, its film literature has the following meaning structure: first, the film takes the form of both film annals and the structure for the public to easily comprehend; second, the film clearly demonstrates its deep-rooted theme asking for the public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party’s late father for its leadership; and third, the film also aims to establish the images of an always awake working leader by implanting and arranging the leader’s diligence about his revolutionary activities in the documentary film.

North Korea’s documentary films serve as a weapon used for instigating revolution and construction. Given this, the producers of all documentary films have made sure to turn film literatures into the film literatures of the great leader. It was identified that under the social vision that the Kim Jong-un regime is a “socialist civilized country”, he has tightened his grip on power in North Korea through the propaganda tool of film literatures.

■ keyword : | North Korean Documentary Film | Film literature | North Korean Film | North Korean Literature and Art | Meaning Creation |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8017500).

접수일자 : 2017년 07월 19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9월 04일

수정일자 : 2017년 08월 07일

교신저자 : 김승, e-mail : offtoon@konkuk.ac.kr

I. 서론

2015년 5월 13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들에 대한 긴급 브리핑에서 북한의 권력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숙청당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영철이 반역죄로 평양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고사 총으로 총살됐다는 첩보도 입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정은이 참석한 군훈련일꾼대회 참가자들과의 기념촬영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그런데 숙청된 현영철은 북한 기록영화에 계속 삭제되지 않았고, 심지어 그는 새로 발표된 기록영화 <행복의 기념사진>에도 등장했다.

이 기록영화에서는 유아를 안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 다음에 수행 나온 현영철이 박수를 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러한 점은 2012년 해임된 리영호가 모든 매체에서 해임 발표 6일 후 삭제됐고, 2013년 처형된 장성택은 처형 발표 5일 전부터 거의 모든 매체에서 삭제된 점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혼선에 대해서 학술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현영철이 실제로는 숙청당하지 않았다는 등 추측성 보도만 난무했다. 이처럼 북한 기록영화의 위상에 비해 그 연구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정주년(整週年)의 개념을 중시하는 북한에서 2015년은 한국전쟁 70주년과 조선노동당창건 70주년을 맞았던 해이다. 북한은 2015년을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맞이하여 사회 각 부문에서 당적 영도와 전체 인민의 단결을 강조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민족문화유산을 적극 보호하고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2015년 북한 기록영화는 영화문헌과 주제기록영화가 각각 10여 편, 그리고 다부작 기록영화 중 6편의 후속편 등 총 26편 가량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선전 매체로서 기록영화가 여전히 북한 체제 내부에서 유효한 작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현영철이 등장했던 기록영화는 영화문헌에 속한다. 영화문헌은 수령의 혁명 활동을 수록한

기록영화로서 영화문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곳은 북한이 유일하다. 북한에서 기록영화는 영화문헌과 일정한 주제를 재현한 기록영화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하위 장르로 분류하고 있다[1].

북한은 영화문헌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의 위대성과 수령이 이룩한 업적을 폭넓고 깊이 있게 보여 주며 그것을 영구보존하고 후세에 길이 전할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교양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2]. 이처럼 북한에서 영화문헌은 실록(實錄)의 원고(原稿)가 되어 역사의 사초(史草)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중요한 정치적 해였던 2015년에 제작된 영화문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주체 104(2015).4-5> (이하, 김정은동지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의 의미생성 구조를 파악하여 영화문헌 고유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북한 기록영화라는 시대의 창을 통해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선동하고, 설득시키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의식 통합은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의 영화문헌은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체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북한 당국에 의해 세뇌됐던 탈북민의 심리적 동기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향후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II. 기록영화로 본 현영철 숙청사건

2015년 5월 11일 조선중앙TV가 방송한 기록영화 <김정은동지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는 현지 지도영화문헌이다. 북한은 영화문헌 중에서 현지도 영화문헌을 가장 중요한 기록영화로 여긴다. 현지도 영화문헌이 당의 혁명적 재부(財富)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현지도영화문헌은 당중앙위원회에서 ‘당기요문헌(黨紀要文獻)’으로 취급하고, 보급된다. 김정일은 현지도영화문헌을 모든 인민들이 의무적으로 관람해야 할 영화라고 강조했다[3].

<김정은동지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는 국

내에 속청됐다고 알려진 현영철이 계속 모습을 드러내 논란을 야기시켰다. 현영철은 과연 속청된 것일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영화문헌의 장르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로동신문』에 의하면, 북한의 기록영화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연원을 둔 주체적인 새 형(形)의 영화이며, 당과 수령의 혁명 활동을 수록한 역사문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4]. 북한에서 기록영화는 혁명의 매 시기에 전형적인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수록한 연대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수령의 현지지도와 같은 혁명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록한 영화문헌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역사 문헌적 성격이 강하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영화문헌은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위력한 사상교양수단”이라고 했다[2].

이러한 영화문헌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영화 문헌에 계속 등장할 때까지는 현영철은 속청된 것이 아니라 해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역사의 반역자가 최고 존엄의 최고지도자와 함께 혁명 활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대내외적 충격을 고려해 영화문헌에서 현영철을 급속히 삭제하지는 않았지만 속청된 것은 맞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동년 6월 6일 공개된 기록영화 <김정은동지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부터는 현영철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기록영화에서 현영철이 참석한 훈련일꾼대회를 방영하면서 현영철 부분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훈련일꾼대회를 아예 내보내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현영철 영화 삭제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5]. 필자는 일부 전문가들의 추측성 주장보다는 통일부의 입장이 더 객관적이라고 판단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한때 망명설이 있었던 인민군 박승원 상장이 조선중앙TV 기록영화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7월 26일 기록영화 <부강조국 건설의 불멸의 대가를 밝혀주시어>를 방영했으며, 이 영화에서 박승원은 김정일의 마식령스키장 건설 현장 현지지도의 수행원으로 2차례 등장한다. 이 기록영화는 김정일의 군사적 업적과 현지지도 모습을 담은

것으로 2014년 2월 첫 방송 이후 수차례 재방영되고 있다. 이로써 박승원의 망명설은 잠잠해졌다.

이처럼 우리는 북한 기록영화를 통해 북한의 내부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북한 기록영화의 장르적 특성에 입각하지 않고서 등장 유무만으로 이를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 자세가 요구된다. 현영철의 사례처럼 북한 기록영화에서 반역자가 삭제되는 경우는 빈발하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 방송매체에서 방송된 기록영화를 인용할 시에는 분석 자료의 초방(初放)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6]. 김일성, 김정일의 다수 저작물처럼 첫 방송이후 당국의 요구에 따라 기록영화가 재가공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영화 문헌 <김정은동지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의 의미생성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 기록영화의 서사구조를 파악하여 분석대상에서 서사의 의미가 어떻게 생성되고, 구성돼 있는지를 살펴본다. 서사구조 분석은 내러티브시퀀스(narrative sequence)를 분석방법으로 하였다[7].

이 분석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인 레토릭을 빌 니콜스(Bill Nichols)가 다큐멘터리에 접목시킨 다섯 가지 부문인 착상(invention), 배치(arrangement), 스타일(style), 기억(memory), 전달하기(delivery)로 서사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8].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이 어떠한 구성형태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한 착상과 배치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착상은 어떤 주장이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증거의 발견이다. 따라서 ‘어떤 사안의 사실에 대한 호소’의 구분과 일치한다. 배치는 수사적 연설이나 영화에서 부분들을 위치시키는 통상적인 순서이다.

다음으로, 서사 분석에 더하여 표상요소를 파악했다. 존 피스크(John Fiske)는 영상의 의미 분석이 현실과 표상,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3단계 수준의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첫 번째 수준의 ‘현실’은 촬영, 조명,

편집, 소리와 같은 ‘기술적 약호’에 의해 코드화되며, 이러한 것들은 표상을 모양 짓는 서술, 갈등, 대사, 배역과 같은 관습적인 ‘표상적 약호’로 부호화된[9]. 결국 이 두 요소(기술적 약호, 표상적 약호)가 2단계 수준의 ‘표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표상요소를 영상기법과 사운드기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표상요소의 파악은 기록영화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재된 의미의 생성구조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IV. 연구결과

1. 서사분석

김정은의 육성으로 발표된 2015년 「신년사」에서는 인민들이 지난 70년의 역사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당의 영도에 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낙관에 넘쳐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2015년 새해를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온갖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이겨내고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나서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 나서자”라는 투쟁구호를 제시했다[10].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김정은동지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는 2015년 조선기록영화과학영화촬영소에서 제작했다. 제작 분량은 9권으로, 90분 가량이다. 이 기록영화는 북한의 공식적이고 유일한 국가연감인 『조선중앙년감』(2015)에 2015년 대표 기록영화로 소개됐다[11].

이 기록영화는 김정은이 선군혁명 영도를 총대로 굳건히 받아들이고 자국과 인민의 운명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내고 있으며, 주체위업의 최후 승리를 위한 진군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극도에 달하고 있는 미국의 공화국 압살에 대응하기 위해 혁명무력을 백두산 혁명 강군으로 더욱 강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영화에서는 인민군대가 김정은의 정력적인 선군 영도를 통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갖게 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김정은이 전략잠수함 탄도탄(SLBM) 발사를 직접 발기했으며, 그의 세심한 지도아래 개발 완성됐음을 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가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의 위대한 수호자임을 강조한다. 또 영화는 지도자의 명령만 기다리는 인민군 장병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철옹성같이 지켜가는 억척같은 신념과 불타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본보기적 사례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당의 선군영도의 모범을 확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시퀀스 서사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김정은동지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는 총 10개의 시퀀스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서론에 해당하는 시퀀스 1에서는 인민군대가 당의 선군영도 아래 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외부 침략자들이 그 어떤 형태의 전쟁을 강요한다고 해도 소탕해 버릴 수 있다는 강한 군사적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본론의 시퀀스 2-9에서는 김정은의 인민군대에 대한 세부 현지지도 사례를 병렬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통상적인 조선인민군 현지지도와 더불어 SLBM 시험 발사 동영상도 공개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조작설을 불식시키고, 미사일 발사 성공이 김정은의 위대한 영도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군사적 메시지 뒤에는 주로 인민군대의 먹거리 문제인 제 810군부대 신창양어장 현지지도로 시작으로 석막대서양연어종어장, 낙산바다연어양어사업소와 종자연연구소인 1116호 농장에 이어 농약연구소인 평양생물기술연구원 방문까지 810군부대 시설에 대한 현지지도 소개에 집중하고 있다.

결론에 해당하는 시퀀스 10에서는 인민의 행복 창조자인 당의 선군영도를 더욱 충직하게 받들어 최후의 승리를 안아오자고 역설하고 있다. <김정은동지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의 시퀀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구성	시퀀스	주요 내용
서론	1	백승의 역사를 펼쳐 나가는 인민군대
↓		
본론	2	조선인민군 해군 제164군부대 시찰
	3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 기념사진
	4	전략잡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 지도
	5	조선인민군 제580군부대 소목장 및 안변양어장 현지지도
	6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신창양어장, 연어종어장, 연어 양어사업소 현지지도
	7	조선인민군 제264대연함부대 시찰
	8	인민군대 종합양묘장 현지지도
9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1116호 농장 현지지도	
↓		
결론	10	당의 선군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자

그림 1. <김정은동지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의 시퀀스 분석

이와 같이 <김정은동지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의 서사구조 방식은 전형적인 논증 형식의 구조를 띠고 있다. 논증의 형식은 논리적 과정의 형태를 띠고서 어떤 사안에 대해 이성적 호소를 하며, 진실된 증거와 타당한 추론에 기초한 신념을 유도하여 수용자에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결론을 도출하게 해준다. 이 기록영화에서도 관객에게 이 영화의 주제가 무엇이고 어떤 점을 얘기하는 지에 대해 확실한 논조로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서사구조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영도 아래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해 나가자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2. 표상요소 분석

2.1 영상기법

북한 기록영화는 촬영의 원칙 중에서 수령의 혁명역사와 업적을 당의 역사문헌으로서 품격을 갖추고 수록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함께 반영대상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화면에 민족적인 정서가 풍만하게 형상화해야 한다[12]. <김정은동지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는 북한 기록영화 촬영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김정은의 인민군대에 대한 선군혁명 활동 소식을 다양한 화

면을 통해 재현하고 있다. [화면 1]은 SLBM의 훈련명령을 하달하는 김정은의 근엄한 화면을 통해 그가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의 위대한 수호자임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화면 2]의 인민들을 접촉할 때는 한없이 자애로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심지어 군부대 식당에 들어설 때 식당종업원을 향하여 밀짚모자를 벗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장면도 포착된다. 자연스러운 일상적 행동인지 연출화면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김정은이 대상에 따라 위엄과 섬김의 이중적 태도로 권위와 인품을 전략적으로 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화면 1



화면 2

기록영화를 통한 ‘역사 만들기’도 계속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2011년 12월 공식 집권을 시작한 김정은의 20대 초반 현지지도 기록영상을 공개한 것이다. <김정은동지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에서는 인민군 제810군부대 신창양어장을 김정은이 김정일과 1998년 4월 19일 방문했다는 내용과 함께 2004년 7월 11일을 비롯해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시찰 표지석이 포착된다([화면 3] 참조). 1984년생으로 추정되는 김정은이 2004년부터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동행했다면, 20살 때부터 이미 후계 수업을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김정은의 첫 현지지도는 2008년으로 알려져 왔다.

주지하다시피 김정은은 2010년 조선노동당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됐다. 만약 김정은이 2004년부터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동행했다면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재학 중인 학생신분으로 현지지도에 참여한 것이 된다. 이는 북한이 김정은의 혁명적 전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역사 고쳐쓰기’를 시도했을 수 있다. 북한이 기록영화를 통해 새로운 역사 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화면 3



화면 4



화면 5



화면 6

[화면 4]에서는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제580군부대 소 목장을 현지지도하는 모습을 핸드헬드(handheld) 촬영 기법을 사용하여 촬영하고 있다. 이 기법은 트라이포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즉흥적 촬영이 가능하다. 반면에 김정일 시대에는 주로 픽스(fix) 촬영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상당분량의 기록영화 촬영이 연출화면으로 구성됐다.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화면 구성이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인민에게 김정은의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덧붙일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다. 이를 통해 김정은은 시대 사회주의 사회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일출화면을 제외하고는 정적인 화면이 거의 없다.

<김정은동지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는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병렬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구성은 다량의 내용을 논증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긴장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 영화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핸드헬드 촬영과 더불어 [화면 5]와 같이 김정은의 이동 모습을 삽입화면으로 구성하고 있다. 극의 역동감을 부여하고 주인공(김정은)의 이동방향과 수용자를 일치시키는 효과를 준 것이다. 또한 적절히 항공촬영 화면을 삽입하고 있다.

김정은은 주로 김정일이 방문했던 곳을 재시찰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이 직접 현지지도한 시설은 대부분 재방문해 지시 사항의 이행정도를 확인했다. 또한 영화 문헌에 비친 김정은은 아주 호방한 모습을 보이며 마치 김일성의 영화문헌을 보는듯한 인상을 주었다. 한편 간부들에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 점은 김정일의 현지지도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영화에 나타난 김정은의 현지지도 스타일은 김일성의 호방한 스타일과 김정일의 세세한 실무형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기록영화의 편집에 대해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수록하여 우리 인민들을 교양하며 귀중한 력사문헌으로 남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13]. 이 기록영화에서는 매 시퀀스마다 김정은과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시퀀스를 마무리하고 있다. 수백명이 최고지도자와 함께 촬영하는 대규모 기념사진은 북한 사진만의 독특한 형식이다. 북한에서 이러한 경향은 나치의 그것처럼 송고미나 장엄미의 과시와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편집상의 오류도 찾아 볼 수 있다. 풀샷(full shot) 다음에 풀샷을 이어 붙여 화면이 튀는 현상이 세군데 정도에서 발견된다(00:30:45, 01:23:42, 01:31:39 참조). 또한 김정은의 현지지도 연설장면에서는 영상문법 중 33도 법칙을 지키지 않아서 어색한 화면도 있다(01:11:06).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조국의 최고 존엄을 모신 영상’에서 기본적인 영상문법을 준수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삼엄한 감시와 검열체제가 존재하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해서 영화 제작에도 무결성 제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또 그럴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도 북을 바라보는 편향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영화문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기계가 아닌 창작자에 의해 제작하는 한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2.2 사운드 기법

<김정은동지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음향 요소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배경음악이 전체 분위기를 리드해 가는 구성아래 여성 성우가 해설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원고량임에도 중간 중간 쉼의 포인트를 줌으로써 수용자에게 사색의

지점을 주고 있다. 이는 영화문헌의 대중학습적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영화문헌은 집단 학습자료로 활용된다. 북한은 대중에게 영화문헌 학습이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영화문헌으로 인해 전당, 전군, 전민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혁명적 신념을 더욱 굳세게 가다듬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이한 점은 기념촬영 시에 김정일과 김정은의 이름을 함께 연호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2015년까지는 김정은 정권이 선대의 유훈통치 계승에 방점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백두혈통에 대한 우상화 정책이 크게 강화되면서 그 비중이 김정일과 김정은에서 김정은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집회에서 ‘김정일 찬양가’는 점점 사라지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가 집중적으로 불려지고 있다.

대중의 열정적인 환호와 같은 선별된 현장음은 사회에 긍정의 메시지만을 전파하려 함이 틀림없다. 실제로 <김정은동지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에서는 SLBM 발사음, 만세소리, 연호소리만이 들릴 뿐이다. 이러한 반복적 노출에 의한 집단 학습의 효과를 우리는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의 응집력의 일단을 영화문헌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V. 논의 및 결론

현재까지 ‘선군문학예술’이라는 북한 문학예술의 창작 기조에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부 창작방법론에 있어서는 기존 창작 방식과 다른 방식을 주문한다. 세련된 연출과 예측하기 힘든 스토리의 전개가 그것이다. 이러한 점은 아버지 김정일과 차별화된 김정은만의 문학예술 창작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의 영화예술은 기존 형식과의 차별화를 시도함으로써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상이론(전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변화를 통해, 높아진 인민의 수준에 발맞추기 위해 부단히 인민성 증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북한의 영화문헌은 우리에게 고무

한 영화형식이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정일은 영화문헌의 제작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인민들에게 한꺼번에 학습시키려 하지 말고 여러번 나누어서 학습시키고, 보급망들에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학습시킨 다음에 TV로 연속해서 방송하도록 지시했다[14]. 또한 그는 이러한 기록영화가 계속 방송되면 적들에게 일심단결된 위력을 힘 있게 과시하게 되어 원자탄을 쏘는 것과 같은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13].

<김정은동지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는 주로 군부대에 대한 시찰이지만 SLBM 발사장면을 제외하면 상당분의 분량을 먹거리 문제에 할애했다. 기실 아직까지 북한이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된 만성적인 식량난과 국가 배급체제를 완전히 복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의 배급체계가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마당이 북한 경제의 한 축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시장이 확대된다는 것은 체제의 시장화와 더불어 타국의 문화콘텐츠가 장마당으로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북한 주민이 자본주의 문화를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북한 정치체제의 약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북한 당국은 북중 접경지대를 통해 유입되고 있는 외부 문화 유입 단속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새 세대를 대상으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영화문헌<김정은동지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는 서사구조에서 서론, 본론, 결론의 논증구조를 통해 주제를 확증시키고 있다. 영상기법은 대중적 투쟁정신을 고취시키고 있고, 사운드에는 대중에 응집력을 추동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화문헌의 의미체계는 첫째, 영상 실록의 형태를 띠며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주제기록영화에서 보여주는 은유와 상징은 최대한 배제한 채 인민이 요해하기 용이하도록 평이한 구성과 흐름을 보이고 있다. 둘째, 당의 선군영도를 따라 주체위업을 이루어 내자는 주제의식을 명확히 논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민대중이 지행해야 할 사회적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셋째, 수령의 혁명 활동에 대한 근면성을 기록영상을 통해 착상, 배치함으로 늘 깨어 일하는 지

도자상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에서 영화문헌은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무기이다. 이에 따라 모든 기록영화 창작가들은 영화문헌을 수령과 당의 영화문헌, 인민의 영화문헌, 전투적인 영화문헌이 되게 해야 했다. 이를 위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투쟁하여 혁명의 난관을 뚫고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정은 체제가 ‘사회주의문명국’이라는 사회적 비전을 내세워 영화문헌이라는 선전도구를 통해 통치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김승, *북한 기록영화*, 커뮤니케이션북스, p.27, 2016.
 [2] 지봉철, “수령영생영화문헌제작의 새 역사를 펼치신 불멸의 령도,” *력사과학*, 제3호, p.11, 2007.
 [3] 김정일, “조선기록영화촬영소의 기본사명에 대하여: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종업원들앞에서 한 연설(1970년 10월 9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p.274, 1987.
 [4] “축하문,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일군들에게,” *로동신문*, 1976.7.2.
 [5] “공개처형설 北 현영철... 새 기록영화선 안나와,” *동아일보*, 2015.6.6.
 [6] 김승, “북한 기록영화의 장르적 특성 연구,” *문화과영상*, 제15권, 제2호, p.311, 2014.
 [7] 김승, “탈북을 다룬 다큐멘터리의 의미전달 체계,” *한국문화기술*, 제20호, p.145, 2016.
 [8] 빌 니콜스, 이선화 옮김, *다큐멘터리 입문*, 한울아카데미, pp.98-108, 2005.
 [9] John Fiske, *Television culture*, London: Routledge, p.5, 1987.
 [10] “신년사,” *로동신문*, 2015.1.1.
 [11]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p.468, 2016.
 [12] 배희철, 백정성, 김대용, 김진호, *주체의 기록영화*, 문학예술종합출판사, pp.129-130, 1999.
 [13] 박일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아버지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기록영화 제작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 *사회과학원학보*, 제80호, p.77, 2013.

[14]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조선예술, 제7호, p.12, 2002.

저 자 소 개

김 승(Seung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북한대학원대학교 사회문화언론전공(북한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주식회사 예인미디어 대표이사
- 2011년 9월 ~ 현재 :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북한 문학예술, 다큐멘터리